

8 조

팀원: (팀리더)곽냐탐, 팀원 하티퀸뉴, 응오티응옥하, 팜티호, 하프엉아잉

과목: 글로벌 시대의 종교와 문화

한국 '빨리 빨리' 문화

1. 서론

안녕하세요, 우리 조는 8 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주제인 바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와 함께 짧은 영상을 봅시다. (동영상)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5 분도 안 돼서 바로 나와서 놀란 적이 있으세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따라가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죠? 사실, 저희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다.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사람들도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다.

오늘 저희 8 조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빨리 빨리' 문화는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하는지 이 문화가 한국인들과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럼 먼저,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알아보까요?

2. '빨리 빨리' 문화의 역사와 형성 배경

'빨리 빨리' 문화는 현대 한국 사회를 대표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한국인의 성격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건 원래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라기보다 전쟁 이후 빠른 산업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1 '빨리 빨리'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조선 말기, 즉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의 한국은 외국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평화롭고 '느린 사회'였다. 사람들은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가며 여유로운 삶을 추구했죠. 따라서 '빨리빨리'는 원래 한국인들의 본래 성향이 아니라 20 세기 중반 이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1950-1953) 이후, 국토는 여기저기도 심각하게 파괴해지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사회 전체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다. 그 시기에 "싸우면서 일하자"라는 구호가 퍼지며 국민들에게 '속도'는 생존과 재건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빨리 빨리'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2.2 '빨리 빨리'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 - 박정희 시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빨리 빨리' 문화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1961 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 출신답게 규율, 기율, 속도를 중시하며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1960 년 당시 한국의 1 인당 GDP 는 100 달러도 되지 않았다. 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으로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다.

제 1 차 계획(1962-1966): 자립 성장을 목표로, 에너지·전력·석탄 산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했다.

제 2 차 계획(1967-1971): 수출지향형 산업화로 전환, 섬유·합판 등 경공업 중심으로 발전시켰으며 대기업(재벌)을 집중 지원했다.

제 3 차 계획(1972-1976): 중화학공업 육성에 힘쓰며 경제·국방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농촌 현대화와 자조정신을 강조했다.

제 4 차 계획(1977-1981): 박정희 대통령이 1979 년에 암살되었지만 그의 정책 방향은 계속 이어졌다. 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고급 인력 양성에 집중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연평균 7~9%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등장했다. 서울과 한강 주변은 급속히 산업화·도시화되었고, 한국은 아시아의 공업 중심지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재정권, 민주주의 억압,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군사정부 아래에서 규율과 효율, 속도는 국가의 표준이 되었고, '빨리 빨리' 정신은 국민의 일상적 사고방식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2.3 속도의 이면 - 노동 문제와 "전태일 사건"

급속한 산업화의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당시 많은 여성 노동자들과 어린 노동자들이 하루 16 시간 이상 일하며 저임금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1970 년에는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이런 현실에 항의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분신자살했습니다(자기 몸에 불을 붙여 자살). 그의 죽음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빨리 빨리' 산업화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 그의 희생은 한국 사회가 속도만을 추구한 것을 주고받게 만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4 속도의 한계 - 1997 년 IMF 경제위기

1980~1990 년대 한국은 계속된 성장에 자신감을 얻으며 1996 년 OECD 에 가입했다. 하지만 급속한 발전 뒤에는 불안정한 구조가 있었다. 단기 외국의 돈을 빌린 것과 해외투자가 아주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결국, 1997 년 아시아 금융위기(IMF 사태)가 터지며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요구해야 했다. 이 사건은 '빨리 빨리' 문화가 한국을 기적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사회의 균형과 기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서 모든 역사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배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점만 간략하게 발표했다. 이 역사 부분을 정리하자면 '빨리 빨리' 문화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역사적 결과로, 그 속에는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놀라운 회복력이 함께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 뒤에 숨겨진 균형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현대 한국 사회의 '빨리 빨리' 문화

빨리 빨리 문화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현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상징적인 문화 요소이다. 이것은 경제, 생활, 사회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다.

3.1 경제 및 기업

경제 및 기업 환경에서의 '속도' 체질화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빨리 빨리' 문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기업들은 제품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 시장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방식은 경쟁사보다 먼저 신제품을 내놓아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IT 와 가전 산업에서 신제품 개발 주기가 매우 짧아, 소비자들은 매년 새로운 제품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하나 중에 한국은 인터넷과 와이파이 속도가 빠르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급망과 물류에서도 속도는 필수적인 가치이다. '당일배송', '새벽배송'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상이 되었으며 물류센터의 자동화와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문화가 유지되는 배경이다. 최소 기능 제품(MVP)을 빠르게 내놓고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해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속도를 통해 시장 적응력을 키우는 방식이다.

3.2 일상 생활 속

일상 생활 속 속도의 습관화 '빨리 빨리' 문화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음식 배달과 온라인 쇼핑이다. 배달 어플을 통해 수십 분 만에 음식을 받아볼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당일배송이 기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당연시하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대부분은 불만을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편의시설도 속도를 중시한다. 무인 카페,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등은 소비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며 모바일 결제와 QR 코드 결제는 거래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게 한다. 교통수단 또한 빠르고 정시성을 강조한다. 지하철, 고속버스, KTX 와 같은 고속철도는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여 바쁜 도시 생활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일상에서의 빠른 처리와 이동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한국인들의 생활 리듬을 규정한다.

3.3 행정, 공공서비스 및 사회

행정, 공공서비스 및 사회 체계에서의 속도 요구 공공 서비스에서도 빨리빨리 문화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과거 종이 문서 중심의 행정 절차는 이제 온라인 신청, 전자 서명, 자동 승인 시스템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 처리 속도를 높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으며, 국민 또한 빠른 처리를 당연하게 여긴다. 기업, 학교, 병원, 공공기관에서는 성과 지표(KPI)를 기준으로 업무를 평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처리했는가'이다. 응답 시간, 프로젝트 완료 기한, 서비스 제공 속도 등이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즉각적인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몇 분 만에 전국으로 퍼지고 여론은 순식간에 형성된다. 이는 사회적 반응이 빨라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성급한 판단이나 단편적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3.4 문화적, 사회적 메커니즘

'빨리 빨리'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 전반의 보상 체계와 인식 때문이다. 일을 빨리 끝내는 것은 능력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반대로 늦으면 무능하거나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기술 발전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자동화, 인공지능, 모바일 앱은 개인과 조직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험과 입시 경쟁 속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훈련된다. 대도시에서는 높은 인구 밀도와 빠른 생활 리듬이 결합되어 '빨리 빨리'를 더욱 자연스럽게 만든다. 사회 전체가 속도를 요구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이 문화는 계속 강화된다.

결론적으로 빨리빨리 문화는 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장, 생활 양식, 사회 운영 전반에 걸쳐 뿌리내리고 있다. 그것은 긍정적 힘과 부정적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과 제도의 발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변형될 것이다.

이처럼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의 경제, 일상생활, 행정,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와서 생활할 때,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어서 하 씨가 이 부분에 대해 발표하겠다.

4. 유학생에게 영향을 미친 ‘빨리 빨리’ 문화

‘빨리 빨리’ 문화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로, 식사, 배달, 학업, 업무 등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난다. 베트남처럼 비교적 “느린 생활 리듬”을 가진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는 이 문화가 하나의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많은 유학생들은 ‘빨리 빨리’ 문화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문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한다.

4.1 학업과 초기 적응의 어려움

처음 한국에 온 유학생들은 한국 사람들이 업무나 생활을 처리하는 빠른 속도에 압도되곤 한다. 모든 것이 빠른 속도를 요구하다 보니 압박감, 스트레스를 느끼고 심리적인 부담이 커진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빠르게 토론에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 한국어 장벽까지 더해져 많은 유학생들이 지치고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다.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빨리 빨리’ 문화가 교수 및 친구들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들며 이는 유학생들에게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나타났다.

4.2 ‘알바’와 일상생활에서의 도전

많은 유학생들이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들 서비스 환경은 특히 ‘빨리 빨리’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초반에는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 혼나거나 지적을 받기 쉽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 결제, 일상적인 대화 등 생활 전반에서 빠른 속도가 유지되어 혼란과 긴장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빠른 학업 및 업무 처리 요구는 유학생들에게 수면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 피곤을 유발하여 건강과 학업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빠르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며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해서 유학생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4.3 ‘빨리 빨리’ 문화가 유학생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처럼 ‘빨리 빨리’ 문화는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주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빠른 환경 속에서 유학생들은 시간 관리 능력, 계획 세우기, 업무 우선순위 설정,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더욱 민첩하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과 학업 및 업무 성과도 함께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빨리 빨리’ 문화의 장단점

이것은 속도, 빠른 반응, 효율성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이자 일하는 방식이다. 이 문화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5.1 장점

무엇보다 '빨리 빨리'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 생산, 건설,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이 전쟁 이후 가난했던 나라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빠름'을 중시하는 정신은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배달, 음식,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은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오피니언뉴스에 따라 이 '빨리 빨리' 의식과 행동 문화가 이번 코로나 방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5.2 단점

하지만 이런 문화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속도를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쌓기도 한다. 빠른 생활 속도는 사람들이 휴식하거나 여유를 느끼는 시간을 빼앗고 삶의 작은 순간들을 즐기게 어렵게 만든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라 워낙 빠른 걸 좋아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일에도 실수나 실패, 오랜 시간이 투입되는 노력을 시간 낭비로 여기기도 한다고 했다. 너무 빠르게 일하려다 보면 일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빨리 끝내는 데만 집중하면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빨리 빨리' 문화는 인내심, 꼼꼼함, 사람 간의 따뜻한 배려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점점 사라지게 만들기도 한다.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는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부유층과 서민층의 격차를 더 빠르게 벌리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유층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빨리 빨리' 문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빨리' 문화는 분명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잘 활용하면 큰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너무 의존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와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며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6. 유교 영향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는 특정한 종교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어느 종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화는 유교의 가치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정치의 근간이었던 유교는 근면함, 규율, 끈

기, 그리고 성취를 중시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이러한 유교적 가치가 국가의 경제 발전 목표와 결합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동기가 강화되었고, 결국 오늘날처럼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간접적인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문화가 한국 사회와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빨리빨리' 문화는 분명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의 여유와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빠름 속에서도 균형과 여유를 찾는다면 '빨리 빨리' 문화는 단순한 속도의 상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통해, 이 문화를 단순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과 생각해볼 점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참고자료

1. 강준만(2010), 「'빨리빨리'의 문화정치학」, 언론과학연구, 제10권3호, 47~58페이지.
2. 김광(2017), 「"빨리빨리"문화라는 함정」 전자책.
3. 「전태일분신사건」, 민주화운동사전, <https://dict.kdemo.or.kr/entry/156/>.
4. 박원암, 홍익대 명예교수, 「경제체질 바꾼 'IMF의 칼'...성장률 깎아먹은 '위장된 축복'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⑧]」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243>.
5. 「세계 속의 한국 경제-한강의 기적」, 한국문화원, <https://kccuk.org.uk/ko/about-korea/economy/the-korean-economy-the-miracle-on-the-hangang-river/>.
6. "Park Chung-hee — Economic policy",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Park_Chung_hee.
7. 새마을운동(새마을運動), 한국민족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7443>.
8. 남부현 외 (2014), 「외국인 유학생 생활경험 속에 투영된 한국인과 한국문화」,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105~126쪽.
9. 이미정 외 (2015),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1권 제5호, 283쪽~307쪽.
10. 「"10 Culture Shocks in Korea: Be Aware of These"」, <https://www.koreanclass101.com/blog/2020/07/31/culture-shock-in-korea/>.
11. 민병두 기자, 「[민병두의 K-Sapience (3)] 빨리빨리 문화: IT강국을 만든 빨리빨리,이제는 승자독식의 부작용」, 뉴스투데이,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40617500064>.
12. HAPPYCAMPUS!, 「동아시아 근대신문 지체요인 분석」,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10817774/>.
13. 강준만(2010), 「'빨리빨리'의 문화정치학: 한국의 '속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제10권3호, 언론과학연구, 7쪽~27쪽.
14. 임정덕(2023), 「K-Speed: The Source of Korean Competitiveness」.